

한구절
묵 상



2026.9/10



평촌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3년 1독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어가며, 그 중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1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3년과정으로 3년에 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 2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묵상노트를 활용하여 개인 묵상해 보세요.
- 3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 4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 5 다락방 모임과 청년부 순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뉘보세요.
- 6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의 개인 묵상과 은혜를 나뉘보세요.

한 구절 묵상 3년과정 커리큘럼

	1년	2년	3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 시편1	잠언 / 시편2	전도서 아가 / 시편3
선지서	이사야 호세아 요엘 / 아모스 오바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나 / 미가 / 나훔 하박국 /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 스가랴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울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1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2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묵상이 어려운 본문(인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왕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 3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집필됩니다.
- 4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①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②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③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9/1 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장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와 첫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장 10-11절

[개역개정]

-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새번역]

- 10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애석하게도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적,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이 시대의 논리를 뒤집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도, 기적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은 행함이나 아닌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8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증명의 압박을 겪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9

④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⑤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⑥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한 구절 가정예배」 소개

① 우리가족 말씀 나눔

온 가족이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한 구절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시아, 느헤미야, 에스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묵상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나눔 질문을 돕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6
주일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드세요

[마가복음 6:32-35, 새번역]

-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니라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이르니라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에 지쳐 잠시 쉬기 위해 배를 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라고 설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돌봐 줄 사람 없이 헤매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건네신 것이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점,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돌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학교와 직장,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막막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시간입니다.

20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거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눠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 때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21

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눔을 통해 묵상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③ 온 가족 감사 나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④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대화를 통해 생긴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주 대표를 정해 기도하기, 가족이 돌아가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와 첫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1장 10-11절

[개역개정]

-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새번역]

- 10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애석하게도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적,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이 시대의 논리를 뒤집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도, 기적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은 행함이 아닌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증명의 압박을 겪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2장 17절

[개역개정]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새번역]

17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구절 묵상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지함이 문제였습니다. 선을 지키려는 열심이 어느 순간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키는 자. 저 사람은 더러운 자. 그 순간 종교는 은혜의 통로가 아닌 배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죄인의 식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계를 넘으셨기에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는 열심이 어느새 누군가를 향한 경계가 되었던 경험은 있지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경계를 넘어 제게 먼저 오신 주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배척을 받지만, 그 갈등 한가운데에서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3장 14절

[개역개정]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새번역]

14 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곁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과 마음, 침묵과 눈물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사역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있음을 잃어버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작 주님의 곁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분주한 하루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의 준비가 아니라, 하루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요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느라,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4장 38절

[개역개정]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새번역]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한 구절 묵상

폭풍이 치며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노련한 어부들마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무심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배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의 시선이 파도가 아닌,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 삶에서 폭풍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폭풍 앞에서 두려움보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파도 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9/5
토

은총의 재료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아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 메시아적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5장 35-36절

[개역개정]

-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하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새번역]

- 35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
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36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였다. “두려워하
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 구절 묵상**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순간, 예수님
께서는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초대는 과거의 비
극을 지워주시겠다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폐허 위에 내일의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과거를 되돌리려는 후회의 집착을 내려
놓을 때, 아픈 시간마저 은총의 재료로 빚어내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
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놓아야 할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살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며,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6장 34절

[개역개정]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새번역]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물려든 무리를 보시고 그들 영혼의 고단함을 읽어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의 ‘손’은 원했지만,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기적이 잠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는 있어도, 목자를 잃은 걸음은 끝내 길 위에서 헤매게 됩니다. 나의 걸음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향해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오늘 기적의 ‘손’을 구하고 있나요, 목자의 ‘음성’을 구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 순간의 기적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의 동행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을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6:32-35, 새번역]

- 32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 33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이르렀다.
-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붙잡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 35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에 지쳐 잠시 쉬기 위해 배를 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라고 설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돌봐 줄 사람 없이 헤매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건네신 것이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점,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돌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학교와 직장,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막막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붙잡히 여기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거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눠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 때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9/7
월

신앙의 우선순위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7장 8절

[개역개정]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새번역]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한 구절 묵상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킨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까? 그 전통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관습이나 형식만 남은 것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좋은 전통 또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좋은 전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뿌리내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8장 29절

[개역개정]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새번역]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에게로 돌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달리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9/9
수

오직 예수만 남았을 때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9장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이 겹쳤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남았음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9장 8절

[개역개정]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다

[새번역]

8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한 구절 묵상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제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의 강렬한 경험은 곧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나요? 특별한 경험이 사라진 뒤 오직 예수님만 남았던 것처럼, 고요한 순간 속에 머물며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사랑의 기억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도 모르게 기대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이 있나요? 무엇인지 적어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신비한 경험보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며,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10장 15절

[개역개정]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새번역]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며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영접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9/11
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1장 17절

[개역개정]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새번역]

17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본질적으로 가장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처음부터 만민이 나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인의 딸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환전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이방인들의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 닫힌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여전히 만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오기 어려워하는 곳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9/12
토

이중계명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둬진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2장 30-31절

[개역개정]

-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번역]

- 30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한 구절 묵상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지만 옆 사람과는 담을 쌓는 삶. 혹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기도와는 멀어진 삶.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으셨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둘을 쪼개어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를 향해 흐릅니다. 하나가 깊어지면 다른 하나도 깊어집니다. 하나가 알아지면 다른 하나도 알아집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이 두 사랑이 얼마나 함께 흐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이 깊어졌을 때 이웃 사랑도 함께 깊어졌던 경험
이 있지 않나요? 이 두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안에 숨어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9/13
주일

끝까지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과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말씀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3장 13절

[개역개정]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새번역]

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끝까지’라는 말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날도, 지치는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울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한 감격 없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말씀 앞에 앉는 것.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십니다. 흔들리는 날이 찾아와도, 끝내 주님의 손만은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지켜내기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며 견뎌내는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3:11-14, 새번역]

-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가다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 12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 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 14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 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을 때문에 미움받는 일은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외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좋은 마음이 들 때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거나, 원칙을 지키느라 손해를 감수했던 부모님에게 오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믿음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견뎌냈는지, 혹은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9/14
월

마음과 육신 사이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4장 38절

[개역개정]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새번역]

38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은 끝내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자주 마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몸은 지치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익숙한 습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과 습관이 따라주지 않아 자책했던 경험이 있나요? 다시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는 초청에 반응하여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9/15
화

거룩한 시력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가복음 15장 33-34절

[개역개정]

-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새번역]

- 33 낮 열두 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 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한 구절 묵상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길을 잃지만, 촛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그 빛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짙은 어둠이 임한 시간, 모든 빛이 꺼진 것 같던 순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 놓여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 드리워진 칠흑 같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소란한 현실과 불안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9/16
수

경이의 감각

오늘의 본문 |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가복음 16장 5-6절

[개역개정]

-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새번역]

- 5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6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यो.”

 **한 구절 묵상**

빈 무덤 앞에서 터져 나온 여인들의 놀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경이의 감각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짓누르던 문제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부활은 닫혀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신 사건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지금의 현실과 문제를 ‘담힌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경이의 감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현실에 묶인 삶이 아니라, 열어주신 새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0장 30-31절

[개역개정]

-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하다

[새번역]

- 30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31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봄은 오래 머물지 못한 채 결국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음은 영원할 것 같지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덜 피곤하게 하시거나, 더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힘은 스스로를 태워 얻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에서 옵니다. 힘의 출처가 바뀔 때, 비로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더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스스로를 태워 살아가려는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9/18
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1장

하나님은 지치고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시며, 영원하신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1장 10절

[개역개정]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번역]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 구절 묵상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잘못된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그들을 상실이라는 불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나라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결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언제 해결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고 있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9/19
토

부르심과 세우심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2장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2장 6-7절

[개역개정]

- 6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붙렸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새번역]

- 6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붙렸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7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 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종 되었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힌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부르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9/20
주일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3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안을 잠재우시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 시겠다는 의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3장 2절

[개역개정]

²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새번역]

²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고난의 터널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위협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까? 어렵고, 지칠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내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고난의 터널에서 나를 위협하는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3:1-3, 새번역]

- 1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 2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 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토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을 건너고 불 속을 걸어가갈 때에도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지나고 있는 물과 불은 무엇인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운 관계, 불안한 미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이 약속을 함께 붙드는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지금 우리 가족이 지나고 있는 ‘물’과 ‘불’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을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 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을 지날 때에도 “너는 나의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9/21
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4장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의 허망함을 조롱하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4장 9절

[개역개정]

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새번역]

9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지적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를 깎거나 쇠를 녹여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우상처럼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곧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로 다짐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헛된 우상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9/22
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5장

이사야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낯선 방식을 예언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5장 15절

[개역개정]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새번역]

15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
나님이십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했을 것입
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지 몰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회의감 가득
한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경이의 고
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한다는 나름의 그림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숨어계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틀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9/23
수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6장

이사야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벨론의 신들과 이스라엘을 친히 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비시키며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6장 9절

[개역개정]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새번역]

9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한 구절 묵상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은 강력합니다. 그것 하나를 가졌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들것에 실려 운반되어야 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끝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저 과거를 추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라는 말입니다. 화려하고 무거운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삶을 바꿔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들것에 실려 이동해야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의 유효기간을 기억하며 결국 끝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9/24
목

스스로 속이는 확신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7장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바벨론은 스스로를 높이며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47장 10절

[개역개정]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새번역]

10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 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 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한 구절 묵상

바벨론의 죄는 스스로를 절대화한 교만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 아니라 유혹이라 부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바벨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힌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보이면, 하나님께 덜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의지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요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해결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의지하던 확신이 주님을 밀어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중심을 다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9/25
금

풀무 불 속에서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8장

하나님은 완고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끝내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8장 10절

[개역개정]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새번역]

10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한 구절 묵상

뜨거운 불을 지나야 비로소 순전한 은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은처럼 제련하셨다면,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의 죄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진멸하지도 않으십니다. 연단은 심판을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주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지금 혹은 과거에 ‘풀무 불’처럼 느껴진 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빚어 가고 계실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을 고통으로만 여겼던 저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연단을 통해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26
토

사랑의 확인

오늘의 본문 | 이사야 49장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종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49장 14-15절

[개역개정]

-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새번역]

- 14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15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한 구절 묵상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소멸이 아니라, 마음에서 무엇을 지워내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소중한 것은 오래 품지만, 무의미한 것은 서서히 흘려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은 의지적 결단을 넘어선 사랑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믿음의 오역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나는 무엇을 붙들려 애쓰고 있고, 무엇을 지워내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9/27
주일

청종의 시간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0장

하나님께서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
곤고한 자들을 돕는 사명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50장 4절

[개역개정]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
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새번역]

4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
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
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나의 혀보다 귀를 깨우십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
라, 깊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곤고한 자를 살리는 말은 기술
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인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만큼 우리의 언어도 무르익습니다.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언어는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시간 속에서 빚어집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주님의 음성에 청종함으로 빚어진 회복의 언어가, 나를 통해 가닿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50:2-5, 새번역]

- 2 내가 왔을 때에 어찌하여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에 어찌하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였느냐? 내게 구해낼 힘이 없었느냐?
- 3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사막이 되고,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썩으며, 목말라 죽는다.
- 4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셔서, 제자들처럼 잘 들을 수 있게 하신다.
- 5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다. 나는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라는 말씀처럼,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놓칠 때마다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는 이유는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따뜻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오늘 내가 한 말은 가족에게 힘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귀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가족에게 먼저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가족 중에 요즘 지치거나 힘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마디씩 나눠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친 서로를 말로 격려하며 일으킬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9/28
월

비방을 이기는 힘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1장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에게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며, 영원한 의와 위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1장 7절

[개역개정]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새번역]

7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 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한 구절 묵상

‘비방’은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방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많은 비방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이겼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비방과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비방 속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를 향한 비방의 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비방이 들려올 때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9/29
화

가장 아름다운 한 걸음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2장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 루실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2장 7절

[개역개정]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새번역]

7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네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한 구절 묵상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직책을 ‘전령’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진 전령에게 험한 산을 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다. 그가 전할 소식이 온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 전히 무너져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전령으로 보 내어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인생도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 리들이 얻은 평화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 누군가의 발걸음 덕분입니다. 그들 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따라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 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 내디뎌야 할 아름다운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참된 평화와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9/30
수

죄악의 담당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며, 그분이 받은 상처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3장 6절

[개역개정]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새번역]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한 구절 묵상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치 않으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요즘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 했던 '나만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다짐하며 기도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양과 같이 멋대로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제 제 판단이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품으실 것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화평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4장 10절

[개역개정]

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새번역]

10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니 말씀이다.

한 구절 묵상

건고해 보이는 산과 언덕도 결국은 변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품으셨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긍휼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변하고 흔들려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실력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요즘 내 마음을 흔드는 불안은 무엇이며, 이를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 앞에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삶에 있는 산과 언덕에 따라 흔들렸던 신앙을 되새겨 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55장 8절

[개역개정]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8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한 구절 묵상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사고와 인식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뜻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고, 일상적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러다보니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황스럽게 여겨집니다.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새로운 시야로 우리 이해 범주를 넓히시며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 속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유한한 이해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10/3
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6장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과 신분의 경계가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6장 7절

[개역개정]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새번역]

7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경계를 미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선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선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관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해 본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뜻과 관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4
주일

부서진 마음 곁에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7장

이사야는 우상을 따라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날카롭게 책망하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7장 15절

[개역개정]

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새번역]

15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다’는 ‘부서진’, ‘짓밟힌’이라는 뜻으로, 죄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으스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령 곁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포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무너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를 가까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서진 마음 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함과 무너짐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무너진 모습을 정직히 고합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상한 마음 곁에 찾아와 주셔서 저의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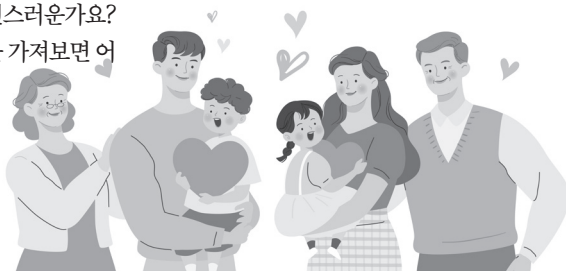
[이사야 57:13-15, 새번역]

- 13 너 우상들에게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 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 14 내가 말한다. 땅을 돌우고 돌우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 15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 곁에도 함께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시는 사람은 화려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어나게 하십니다. 낮아짐의 자리가 곧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솔직히 잘못을 인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가족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앞에서, 구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못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10/5
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오늘의 본문 | 이사야 58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위선적임을 지적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8장 6절

[개역개정]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새번역]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한 구절 묵상

금식은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도 이웃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지 무엇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곁으로 흘러가고,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주변에 내가 함께 짐을 짊어지거나 눌린 것을 풀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한 이스라엘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59장 21절

[개역개정]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21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죄악 가운데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까지 이어질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에 앞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된 소유와 안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친히 빚어가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밀은, 보장된 상속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보장된 소유와 안정’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신실하신 주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며,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60장 21-22절

[개역개정]

-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새번역]

- 21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22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없이 이루겠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자를 번성케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멈출지라도, 지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초라한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실망의 존재를 영광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의 초라한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무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종을 통해 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슬픔 대신 기쁨과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61장 3절

[개역개정]

³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³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한 구절 묵상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재를 뒤집어쓰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입은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재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그들을 입히십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통해 열매 맺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히 열매 맺히길 기도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벗어야 할 슬픔의 옷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입어야 할 기쁨의 옷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찬송이 제 삶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 이름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기쁨의 신부처럼 세우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62장 4절

[개역개정]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헐시바라 하며 네 땅을 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새번역]

4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 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죄와 수치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헐시바'와 '뿔라'. 사랑받는 아내,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아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나요?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름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0/10
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오늘의 본문 | 이사야 63장

영적인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63장 15절

[개역개정]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새번역]

15 하늘로부터 굽어 살피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자신들에게 향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의 징계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갈급함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목마르다 하여 바닷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듯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의 자비가 그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낙심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10/11
주일

주는 토기장이

오늘의 본문 | 이사야 64장

하나님의 진노를 겪은 백성들이,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64장 8절

[개역개정]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새번역]

8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자신들은 진흙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토기장이 되시기에 자신들을 빚을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만, 주님은 그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는 진흙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토기장이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주권을 내려놓고 토기장이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진흙 같은 저의 삶을 굽어살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64:6-8 새번역]

- 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 7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 8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신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입니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이사야의 고백은 솔직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신을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진흙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고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력감이 아니라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신뢰입니다. 토기장은 진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빚어 완성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빛어지고 있을까요? 힘든 시간도 우리를 빛으시는 토기장이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렵고 불편한 과정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에서 창조의 원래 질서가 온전히 회복 될 것을 예언하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65장 25절

[개역개정]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번역]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한 구절 묵상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소를 사냥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힘의 논리 또한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현실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식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꿈꿀 때 우리의 마음에 왜인지 모를 울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향수, 끌림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는 세상은 그저 순진무구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시대의 가치와 상식을 거슬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을 지나 새 창조 안에서 예배가 인간의 최종 목적지임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66장 22-23절

[개역개정]

-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새번역]

-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3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에서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그립니다. 예배는 새 창조를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새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예배 안에서 새 창조를 고백하며 그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매주의 예배가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게 하옵소서.

10/14
수

무정함의 죄

오늘의 본문 | 오바다 1장

형제 나라 유다가 침략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적에게 동조했던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오바다 1장 15절

[개역개정]

15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새번역]

15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에돔과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된 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에돔은 광야를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던 날에는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 채 적들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단순한 적대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아픔 앞에서 냉담했던 무정함이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선언은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이시며, 그 고통을 외면한 자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공의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나의 마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지나친 적은 없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무뎠던 제 마음을 깨워 주시고,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섬기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과 소망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개역개정]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새번역]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한 구절 묵상

베드로는 성도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붙들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현재의 형편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소망이 커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살아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10/16
금

살아 있는 작품으로

오늘의 본문 |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심 받은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선언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개역개정]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생명력은 머무르지 않고, 담을 넘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옮기신 은혜는 우리 안에 간직된 감격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액자에 걸린 장식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려 가시는 살아 있는 작품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게 복음은 내 안에 머무는 신앙적 감격에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 성도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0/17
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의 본문 |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권면하며, 고난 속에서도 선과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개역개정]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새번역]

12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한 구절 묵상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쏟아부은 수고에 비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협 대신 의를 선택 하고도 박해를 마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현실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공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 인 동시에, 내 안의 타협을 막아서는 경고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 할 때, 고난은 의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의를 굳게 붙드는 은혜가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의를 포기할 이유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의를 더욱 굳게 붙드는 은혜가 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선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개역개정]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새번역]

11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한 구절 묵상

‘답다’는 어떤 대상의 본질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두 가지를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말씀’과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봉사의 사역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말씀과 봉사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9-11, 새번역]

- 9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 10 각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 11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밥을 짓고 청소하며 가족을 챙기는 작은 수고도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가족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고마워”라고 말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것 중에 잘 보이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나요? 서로 그 수고를 찾아보고 감사를 표현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원망없이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10/19
월

잠간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오늘의 본문 | 베드로전서 5장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장차 주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개역개정]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새번역]

10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잠간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겪고 있는 잠간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겪는 잠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10/20
화

말씀 앞에서

오늘의 본문 |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개역개정]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새번역]

20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풀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 앞에서 나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끔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아도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경험 안에서 임의로 해석했던 순간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결단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10/21
수

구원과 심판

오늘의 본문 |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개역개정]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새번역]

9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아십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반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의롭게 사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나를 낙심케 만든 세상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악함 가운데 흔들렸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10/22
목

굳건한 삶

오늘의 본문 | 베드로후서 3장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신앙을 지키며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새번역]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불안은 존재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을 때 찾아옵니다. 자녀의 미래 앞에 불안한 부모, 평가와 성과 앞에 압박감을 느끼는 직장인, 성적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학생.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들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굳건한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 위에 서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뿌리내린 사람은 흔들리는 것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을 잃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와 감정을 다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근거를 확립하라는 요청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내 삶이 가장 흔들렸던 때는 언제였나요? 나는 그때 무엇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23
금

자랑거리

오늘의 본문 | 시편 20편

시인은 보이는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0편 7절

[개역개정]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새번역]

7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한 구절 묵상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성품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헤세드, 다시 말해 신실하고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차나 기마 같은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과는 다릅니다. 병거가 무너져도 말이 쓰러져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끊어지지 않는 헤세드 안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10/24
토

승리의 주인공

오늘의 본문 | 시편 21편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로,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며 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1편 13절

[개역개정]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새번역]

13 주님, 힘을 펼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물러갔고 왕좌는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마지막에는 승리한 왕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셔 드립니다.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심보다, 하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시며 그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신앙은 내가 이루어 낸 이야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절정에서조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성취나 성공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10/25
주일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 시편 22편

시인은 버림받은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2편 24절

[개역개정]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새번역]

24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한 구절 묵상

이 시는 비통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외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의 끝에 이르러 고백은 놀랍게 바뀝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시인의 이해였습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고, 기다림은 버림받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편 22:22-24, 새번역]

- 2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23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 24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도 아니하셨다. 주님은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작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부르짖을 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그 기도제목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26
월

소유가 아닌 소속

오늘의 본문 |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 목자로 모신 삶의 기쁨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3편 1-2절

[개역개정]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새번역]

-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삶의 만족이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닌 소속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선택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쉼과 만족의 자리로 인도받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혼의 깊은 평안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얻게 됩니다. 참된 만족은 나를 채울 때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주어집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요즘 무엇을 통해 만족과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선택 목자 되시는 주님,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27
화

더 깊이 사랑하기를

오늘의 본문 | 시편 24편

다윗은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들이 갖춰야 할 정결함을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4편 3-4절

[개역개정]

-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새번역]

-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구절 묵상

여호와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장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은 외적인 성공과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결함으로 채워진 순전한 마음 위에 그 사귄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더 많이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정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순전한 사랑을, 제 마음 가득 부어 주옵소서.

다윗은 죄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5편 4-5절

[개역개정]

-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새번역]

- 4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5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으로 방향을 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혼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선택을 할 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저의 무지함을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6편 1절

[개역개정]

¹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새번역]

¹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
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의 완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완전함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가 많은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고자 했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완전함이 오늘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10/30
금

단 하나의 소원

오늘의 본문 | 시편 27편

다윗은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만 신뢰하기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7편 4절

[개역개정]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새번역]

4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의 삶에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 또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방에 옥여썸을 당한 이때에 보통은 군사적 도움이나 안전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만 구합니다. 그것은 평생 여호와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단 하나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구했던 다윗의 중심을 닮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8편 3절

[개역개정]

3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새번역]

3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악인이요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웃들을 축복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정죄와 악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과 마음이 다른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도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위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과 마음이 하나 되어 진짜 화평의 삶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마음에는 계산을 품은 채, 겉으로만 좋은 관계인 척 화평을 말했던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주일 말씀 메모

